

- 주요 뉴스: 미국, 이란 영토 공격 확대 일부 언론은 이란이 미국에 대화 요청했다고 보도
 - 미국 재무장관, 금주 글로벌 관세 15%로 인상. 일부 연준 인사는 금리 동결 지지
 - 미국 2월 ADP 민간고용, 7개월래 최대. ISM 서비스업 PMI는 22년 7월 이후 최고
 - 중국 전인대,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 협력 확대 기대. 2월 제조업 PMI는 하락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이란과 협상 가능성 양호한 2월 경제지표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美 이란 물밑 접촉설, 고용 호조, 기술주 강세 등으로 상승
유로 Stoxx600지수는 이란 전쟁 장기화 우려 감소 등으로 1.4%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으로 하락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2%, 0.4%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양호한 2월 민간고용 및 서비스업 PMI 등이 반영
독일은 유가 진정으로 인한 물가상승 우려 완화 등으로 약보합 마감
- ※ 뉴욕 1M NDF 증가 1461.5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62.9원, 0.9% 하락). 한국 CDS 상승

주요지표					주요지표				
		3/4일	3/3일	전일대비			3/4일	3/3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869.5	6,816.6	+0.78%	국채금리 10y	미국	4.10%	4.06%	+4bp
	유럽	612.71	604.44	+1.37%		독일	2.75%	2.75%	-0bp
	중국	4,082.5	4,122.7	-0.98%		영국	4.44%	4.47%	-3bp
	일본	54,246	56,279	-3.61%	CDS 5y	한국	27bp	26bp	+1bp
	한국	5,093.5	5,791.9	-12.06%		중국	45bp	46bp	-1bp
환율	달러지수	98.80	99.05	-0.26%	위험지표	EMBI+	-	281	-
	유로화	1.1634	1.1613	+0.18%		VIX	21.15	23.57	-10.27%
	엔화	157.06	157.74	+0.43%		WTI유	74.66	74.56	+0.13%
	위안화	6.8971	6.9181	+0.30%	원자재	구리	584.6	577.4	+1.25%
	원화	1,476.2	1,466.1	-0.68%		금	5,140.4	5,088.8	+1.01%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이란 영토 공격 확대. 일부 언론은 이란이 미국에 대화 요청했다고 보도

- 미군은 이란 영토 깊숙하게 공격을 확대할 것이며, 이란의 군사력은 소멸하고 있다고 발표.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미군 잠수함이 이란 전함을 격침시켰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또한 일주일 이내에 이란의 방공망이 무력화될 것이라고 발언
- 미국 중부사령부의 쿠퍼 사령관은 전쟁이 당초 계획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고, 다른 군 관계자는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공격이 감소하고 있다고 언급
- 한편, 이날 NYT는 이란 당국이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종전을 위한 협상을 제안했다고 보도. 해당 뉴스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미국에 이란의 제안을 무시하도록 촉구했고, 미국 관계당국 역시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 이번 뉴스로 시장에서는 전쟁의 조기 종료 가능성이 부각. 다만, 이란 측은 해당 뉴스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일종의 심리전에 불과하다고 일축
-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전세계에서 에너지가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보장하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 베센트 재무장관은 원유시장에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발표. 이러한 언급은 원유공급 관련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평가
-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전쟁의 조기 종료 가능성, 미국의 원유 운송 보장 강조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 둔화되며 전일비 강보합 마감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재무장관, 금주 글로벌 관세 15%로 인상. 일부 연준 인사는 금리 동결 지지

- 베센트 재무장관은 글로벌 관세의 15% 인상 시기를 묻는 질문에 해당 시점은 이번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대답. 새로운 관세는 이전보다 견고할 것이라고 강조
- 연준 마이런 이사는 이란 전쟁의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이전과 마찬가지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 다만, 클리블랜드 연은의 해맥 총재는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해 당분간 금리를 현행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 한편, 연준 베이지북은 소비심리 위축이 기업 매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

■ 미국 2월 ADP 민간고용, 7개월래 최대. ISM 서비스업 PMI는 '22년 7월 이후 최고

- 2월 ADP 민간고용은 6.3만개 늘었으며, 이는 7개월 만에 최대. 세부적으로 의료 서비스 및 교육 부문이 호조를 나타냈고, 이번 결과는 고용이 점차 안정화된다는 신호로 해석. 이직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은 6.3%로 전월비 둔화
- 2월 ISM 서비스업 PMI는 56.1로 전월(53.8) 대비 상승하면서 약 3년 반 만에 최고치. 이번 결과는 향후 경제 회복 기대를 높이는 요인이나, 최근 이란 전쟁 등으로 향후 경제 회복을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

■ Goldman Sachs 솔로몬 회장, 금융시장이 이란 전쟁 소화하는데 수주 소요

- 솔로몬 회장은 금융시장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대해 대체로 차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 다만, 현 상황에서 향후 결과를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고, 관련 영향을 충분히 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주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

■ 중국 전인대,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 협력 확대 기대. 2월 제조업 PMI는 하락

- 전인대 제14기 4차 회의 개막식에서 대변인은 시진핑 주석이 미국과 파트너가 되어야 하며, 협력 확대를 위한 용의가 있음을 언급했다고 발표. 또한 중국 경제의 최대 과제로 지목되는 내수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도 피력
- 한편, 2월 국가통계국의 제조업 PMI는 전월비 하락(49.3→49.0)했으나 비제조업 PMI는 소폭 상승(49.4→49.5). 다만, 모두 확장의 기준 50을 하회. 반면, 레이팅독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는 모두 전월비 상승(각각 50.3→52.1, 52.3→56.7). 부문별로는 신규수주, 생산 등이 호조

■ 일본은행 총재,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경계. 금리인상 기조는 유지

- 우에다 총재는 유가 상승이 계속되면 인플레이션을 높일 수 있다며 중동 정세와 관련 영향을 주시할 것이라고 발언. 다만, 일본은행의 경제 및 물가 전망이 정확하다면,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언급. 또한 완화적 금융 여건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목표(연율 2%)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부연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3/5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2월 4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 1월 수출입 가격. 연준 보우먼 이사 발언
- 유로존 1월 소매판매, ECB 라가르드 총재 발언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트럼프의 이란 공격, 자국 경제 위험을 극단적으로 높이는 행위 - 블룸버그

(Iran war dials US economic danger up to 11)

- 미국 경제의 위험 수준은 이란 전쟁으로 '극단적' 단계로 상승. 증시 고평가, 관세 부담, 재정 악화, 인플레이션 고착화 위험이 누적된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 급등, 교역 차질, 정치 불안 등 새로운 충격이 추가. 특히 전쟁 장기화 시 유가 상승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증가, 연준의 정책 대응 어려움 가중 등이 예상
- 또한 부채 증가로 재정정책 대응 여력도 이미 제한적이며, 관세 위법 판결로 세수 감소와 정책 불확실성 확대도 불가피.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예산 정책은 이미 금융 불안을 감수한 도박이었고, 이란 공격으로 위험이 배가

■ 미국의 인플레이션 대응, 이란 전쟁·유가 상승에도 연준의 통화정책이 핵심 - WSJ

(A Phony Iran Inflation Scare)

- 이란 전쟁으로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브렌트유 가격이 '24년 이래 처음으로 배럴당 80달러 상회. 그러나 ▲전쟁 발발 이전 이미 충분한 공급량 유지 ▲OPEC의 증산 전망 ▲중동産 석유 의존도 감소 등으로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가능성
- 아울러 유가 상승은 직접적인 인플레이션 유발 요인이 아님을 유념할 필요. 고유가가 지속되어도 연준이 선부른 금리인하에 나서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 장기화를 초래하지는 않을 전망. 이에 인플레이션은 통화 현상임을 지적한 밀턴 프리드먼의 교훈을 기억하고 연준의 실책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

■ 아시아 증시의 패닉 셀링(공황 매도), 단기 투자자금 포화 등에 기인 - 블룸버그

(Why the Iran War Has Morphed Into Panic Selling in Asia)

- 미국의 對이란 공격 이후 한국·일본 등 주요 아시아 증시는 패닉 셀링으로 낙폭이 확대. 동아시아 국가들은 대체로 석유와 천연가스의 對外 의존도가 높지만, 충분한 비축량을 확보하고 있어 이와 같은 수준의 주가 폭락은 예상치 못한 상황. 다만, 이는 이란 전쟁 자체보다 단기 성향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대거 유입된 데 기인
- 실제로, 대만 및 한국 AI 관련 기업의 실적 호조 전망으로 관련 ETF 등에 단기 자금 유입이 증가. 이는 아시아 AI 인프라 시장의 투자금 포화를 유발. 이러한 상황에서 이란 전쟁이 발발하며 달러화 강세, 유가 상승 등으로 투자심리가 악화. 이는 결국 패닉 셀링으로 이어지며 주가 폭락을 초래

- **국제 유가, 이란 전쟁 악화에도 중동 의존도 축소 등으로 100달러 하회 - Financial Times**
(Why has oil not hit \$100 a barrel?)
 - 미국의 이란 공습 전에 에너지 전문가들은 최악의 전쟁 시나리오(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란의 페르시아만 항구정유 시설·가스관 보복 공격 등)를 제시. 이는 전쟁 발발 4일 만에 상당 부분 현실화되었지만, 국제 유가는 다음의 이유로 당초 예상되었던 배럴당 100달러 돌파에 실패. 첫째, 과거에 비해 전세계 경제의 석유 의존도는 대폭 감소
 - 둘째, 특히 중동 석유에 대한 의존도 크게 감소. 셋째, 미국이 최대 석유 산유국으로 부상하고 가이아나, 브라질, 캐나다 등에서 새로운 석유가 시장에 공급. 넷째, 일부 산유국의 유조선 항로 변경, 파이프라인 이용 등 우회 경로 활용. 다섯째, 공급 충격이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기대. 여섯째, 시장 참여자의 전쟁을 예상한 선제적 대응
 - 일곱째, 장기간 안정적인 공급망에 기반을 둔 국가별 전략비축유 확대. 여덟째, 걸프만 외곽 해상에 대기하고 있는 유조선들의 대규모 저장물량. 아홉째, 트럼프 정부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가 상승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다만, 원유 운송 차질 장기화 시 배럴당 100달러 돌파가 현실화될 가능성(S&P Global Energy)
- **미국 정부의 관세 환급금 이자 지급, 재정부담 증가로 이어질 소지 - 블룸버그**
(US to Pay Interest If Ordered to Refund Importers Over Tariffs)
- **원유시장 혼란, 호르무즈 재개방 후에도 걸프 지역 인프라 피해 등으로 지속될 우려 - WSJ**
(Oil Market Turmoil to Continue Even If Hormuz Reopens)
- **미군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 수송선의 위험 감수 차이 등으로 즉각 효과 기대난 - 블룸버그**
(Hormuz Convoys Won't Fix Vital Oil and Gas Flows Overnight)
- **미국, 이란에 정권 유지 대가로 석유 거래 제안할 가능성 - Financial Times**
(The cynical opportunities of 'Epic Fury')
- **이란, 주변국 담수화 시설 파괴에 나설 경우 전쟁의 급격한 확산 예상 - 블룸버그**
(The Iran War's Most Precious Commodity Isn't Oil)
- **중국의 위안화 기준 환율 상향, 유가 충격·달러화 강세 대응 등이 목적 - 블룸버그**
(China's Abrupt Yuan Reversal Reveals Anxiety Over War, Oil Sho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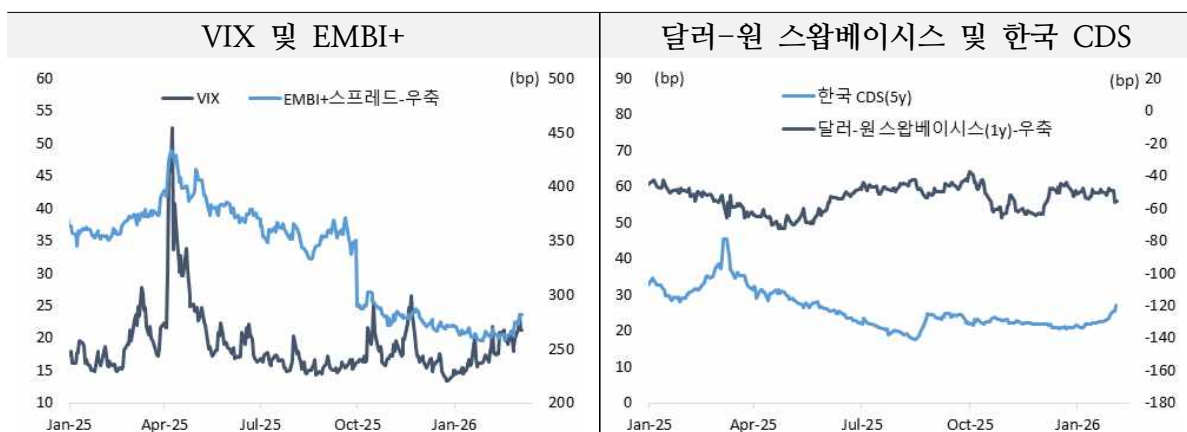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